

樂浪 貞柏洞 3호분과 37호분의 남방계 獅子形 垂飾과 商人의 활동

이 송 란*

- I. 머리말
- II. 樂浪 貞柏洞 3호분과 37호분의 구조와 성격
- III. 樂浪 貞柏洞 3호분과 37호분의 獅子形 垂飾 수식의 계보
- IV. 樂浪의 남방계 공예품의 수용과 거점식 교역체계
- V. 맺음말

I. 머리말

漢 武帝는 水軍 7천 명과 陸軍 5만 명의 대규모 병력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衛滿朝鮮을 멸하고, B.C. 107년에 樂浪·玄菟·臨屯·眞番의 한사군을 설치하였다.¹ B.C. 82년에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되고 B.C. 75년에 현도군이 요동 방면으로 후퇴한 이후 樂浪郡은 평양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漢과 魏晉 등 여러 왕조를 거치며 420여 년간 존속하였다.²

* 인천시 문화재감정관.

¹ 權五重, 『樂浪郡研究—中國古代邊郡에 대한 事例的 檢討』(一朝閣, 1992), pp.46-49.

낙랑이 남긴 유적들로는 6개의 土城址와 2000여 기의 고분 등이 있다. 이들 유적들에 대한 조사는 1909년 학문과 학문 외적인 이유로 일본 官學者들이 먼저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북한의 대규모 발굴이 이어졌고,³ 이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북한학자들은 古朝鮮과 연계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낙랑유적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고학 자료와 문헌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낙랑의 존재와 위치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지금은 그 역할과 관련하여 체제와 운영 상황을 究明하는 주제들로 집중된다. 이는 강력한 통제력으로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였다는 의견과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시키는 경제적인 역할을 주목하는 의견으로 크게 나뉜다.⁴ 최근에는 후자의 의견이 중심이 된 가운데 식민지의 역할을 부정하고 대동강 변에 위치한 漢人坊이나 租界地로 이해하는 의견에서 발전하여 근현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중국과 삼한 그리고 일본과의 국제적 교역관계를 통해 낙랑사회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려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⁵ 이들 의견들을 참조한다면 낙랑은 한반도와 중국과의 국제적 관계 속에 존립하였으며, 기존의 토착문화의 토양에서 다각적인 국제문화를 수용하여 형성된 독특한 지역사회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랑의 공예품 중 특히 외래계 장신구를 주목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장신구는 풍속과 신분이 반영되어 형태와 문양이 제약되는 威勢品の 속성을 가진다. 또한

2 낙랑의 위치에 대해서는 平壤(谷豊臣, 「樂浪郡の位置」,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1987), pp.23-45;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2(1990), pp.5-11)과 遼東(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一志社, 1986), pp.305-343)으로 크게 나뉜다. 최근에는 중국 요녕성에는 낙랑 관계의 유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평양과 그 근처 낙랑 토성과 토성 주변의 2000여 기에 달하는 낙랑 고분군들이 존재해 있어, 평양 또는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 글도 평양설을 따른다.

3 이 중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200여 기 정도이다. 안병찬, 「평양일대의 락랑유적의 발굴정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5년 4기(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95), pp.7-9.

4 이영훈·오영찬,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樂浪』(술출판사, 2001), pp.227-235.

5 리여성, 「대동강변 한식 유적 유물과 〈악랑군치〉 설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55년 5호; 金元龍, 「樂浪文化의 歷史的位置」, 『韓國文化의 起源』(탐구당, 1982), pp.165-173; 同著, 「삼국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삼국사기와 낙랑군에 대한 재검토」, 『동아문화』 7(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7), pp.1-38; 同著, 『韓國考古學研究』(一志社, 1987), pp.528-529; 이현해,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일조각, 1998), pp.264-290; 尹龍九, 「三韓의 朝貢貿易에 대한 一考察: 漢代 樂浪郡의 交易형태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162(歷史學會, 1999), pp.1-22; 同著, 「삼한과 낙랑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 34(한국고대사학회, 2004. 6), pp.125-144; 權五重, 「樂浪王光墓의 銅鏡」, 『釜大史學』 第23輯(釜山大學校 史學會, 1999. 6), pp.89-107; 同著, 「方格規矩四神鏡의 流轉」,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2000), pp.149-177; 金泰植, 「伽倻와 樂浪」, 『한국고대사연구』 34(한국고대사연구회, 2004. 6), pp.213-224.

선진 공예기술을 수용하여 회소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대외 교섭 양상을 함축하여,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낙랑은 군현의 지배를 위해 중국에서 새로 이주한 漢人들과 군현 설치 이전에 이미 이주하였던 土着 漢人들, 위만조선의 토착민 등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었는데,⁶ 장신구들도 다양한 문화적 복합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들 장신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낙랑과 인접한 곳이 아닌 먼 거리에 떨어진 지역에서 유래한 장신구들이 출토되는 점이다. 원거리의 외래계 장신구의 수용과정의 분석은 낙랑 사회의 성격과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외래계 장신구 중에서도 특히 獅子形 垂飾의 계보와 수용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사자형 수식은 기원전 1세기 중엽에서 기원 전후로 편년되는 異穴合葬木槨墓인 貞柏洞 3號墳과 貞柏洞 37號墳에서 출토되었다.⁷ 남성과 여성이 한 고분에 합장된 정백동 3호분과 정백동 37호분에서 사자형 수식은 모두 여성이 부장된 곁에서 출토되었다. 貞柏洞 3號墳에서는 瑪瑙로, 정백동 37호분에서는 琉璃로 만들어진 사자형 수식이 발견되었다. 서아시아와 인도에서 즐겨 조형되던 사자는 중국에서는 한대부터 등장하는데, 사자형 수식은 현재 북방이나 중원지역에서는 그 예가 없어 남방 지역과의 관련이 상정된다.⁸

한편 사자형 수식의 계보와는 달리 정백동 37호분의 남성이 안치된 곁에서는 북방계 장신구인 銀製打出動物文 帶鉤가 동반되어 한 고분에 남방계와 북방계의 장신구가 동시에 부장되어 있어 흥미롭다. 계보가 다른 장신구가 한 고분에서 동반된 점과 인접지역이 아닌 남방지역에서 수용된 점은 낙랑과 중국과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묘주의 사회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 신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은제타출동물형 대구를 먼저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런 연후에 여성들의 장신구로 추정되는 사자형 수식의 계보를 남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출토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서 남방계 공예품이 낙랑지역으

6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土槨木槨墓의 분석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26(歷史學會, 1990), p.14.

7 이영훈, 『樂浪木槨墳의 一考察』(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pp.22-23.

8 중국 남방은 북위 33도부터 南海의 여러 섬까지 포함시키는 지리적인 범주로서, 지형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열대기후에 공기는 습윤하고 농경생활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민족 성분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와 비슷하다. 『史記』 「貨殖列傳」에서는 남방을 越과 楚의 땅으로 언급하였고 『漢書』 「地理志」에는 淫祀를 중요시하며, 중원과는 다른 이질적인 지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童恩正, 「南方-中華民族古文明의 重要營育之地」, 『南方民族考古』 第1輯(四川大學博物館·中國古代銅鼓研究會, 1984), p.1.

로 수용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결국 사자형 수식의 수용과정을 究明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의 물품이 집결될 수 있었던 물자 집산지로서 낙랑의 지역적 성격과 외래문화의 수용 방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樂浪 貞柏洞 3호분과 37호분의 구조와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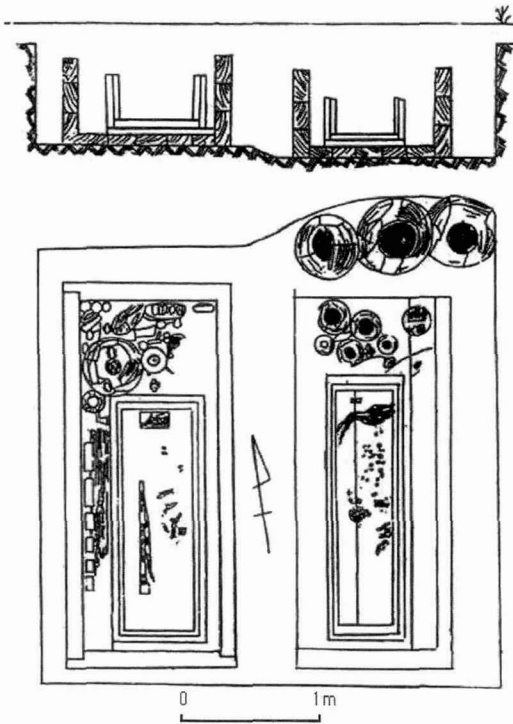
1. 貞柏洞 3호분·37호분의 구조와 부장품

정백동 고분군은 평양을 北東에서 南西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동강의 좌안 낙랑구역 정백동의 서남쪽에 자리한 오봉산의 능선자락에 펼쳐져 있다. 木槨墓, 磚築墓, 甕棺墓 등의 수백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정백동 고분군의 인근에는 B.C. 1세기에서 A.D. 3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토성동 고분군과 정오동 고분군, 남사리 고분군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樂浪郡治所址로 추정되는 土城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유적으로 볼 때, 이 일대가 당시 중심지로 이해된다.

3호분과 37호분은 모두 목곽묘인데, 직각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판재와 각재를 사용하여 목곽을 만든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곽 안과 밖의 머리 쪽 빈 공간에 부장품을 놓았다 삼도⁹. 목곽묘는 하나인 곽을 가진 단장 목곽묘와 여러 개로 구성된 합장목곽묘로 나뉜다. 다시 합장목곽묘는 같은 구덩이에 안치한 것과 구덩이를 달리한 것으로 분류된다. 정백동 3호분과 37호분은 모두 구덩이를 달리하여 합장한 이혈합장목곽묘인데, 구조와 부장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백동 3호분은 '周古'라는 銅印이 출토되어 일명 '주고묘'라고도 한다. 西槨의 내부에서는 漆耳杯·漆床·漆盤 등의 칠기류와 기원전 1세기에 유행했던 昭明鏡·青銅注子·日傘臺·鐵製長劍·銅銚 등의 금속공예품들과 승석문토기·화분형토기 등의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반면 유물칸이 별도로 마련된 東槨의 여성묘에서는 漆盤·漆耳盃·漆奩 등의 칠기류와 명도전·오수전의 중국 동전들, 그리고 은반지·사자형 수식 등의 여러 수식들과 수정·유리로 구성된 목걸이와 팔찌 등의 장신구들이 부장되었다.

⁹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고학자료집』 제6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pp.7-17.



삽도1 정백동 3호분의 구조

정백동 37호분은 목곽이 북서와 남
 동으로 놓인 異穴合葬木槨墓인데, 북서
 쪽에 남성이 그리고 남동쪽에 여성이 묻
 힌 것으로 이해된다.¹⁰ 북서쪽에서는 日
 光鏡·昭明鏡이 각 1점, 철제장검 등의
 무구류, 漆筒 등의 칠기류와 銀製動物形
 帶具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동편 부
 장칸에는 靑銅三足壺·漆器盤·漆器
 洗·화분형 토기·승석문 항아리 등의
 용기류들이 출토되었다. 북편 부장칸에
 서는 금동제장식이 부착된 漆製검집과
 鐵劍·鐵矛 등 각종 武具類와 金銅製 馬
 面과 재갈멈치 등의 車馬具들이 발견되
 었다. 칠기 중에 “地節四年二月(B.C. 66
 년)”이란 기년명이 기록되어 있어, 고분
 의 연대를 대체로 B.C. 1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묘는 남성의 것
 에 비해 그 부장품의 수가 훨씬 적다. 이

곳에서는 남색유리로 된 사자형 장식이 가운데 달린 목걸이와 대추옥 모양과 둥근 형태의 瑪
 瑙製 팔지 등의 장신구들이 덧널 안에서 출토되었고, 도기류·칠기류·마구류·일산·거여
 구 등이 동쪽과 남쪽의 유물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B.C. 1세기대 낙랑 고분의 최상 수준인 두 고분의 부장품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소명
 경·일광경 등의 동경류, 철제장검 등의 武具類와 金銅製馬面 등의 車馬具類, 각종 칠기류
 등 漢式 공예품의 비중이 큰 가운데 고조선계 銅矛와 화분형 토기 등 낙랑 지역성을 가진 공
 예품들이 혼합된 점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장신구는 낙랑의 정치적·문화적 특징
 이 그 어떤 유물보다 분명히 나타나서 흥미롭다. 즉 북방 유목권의 스키타이인들이나 흉노

¹⁰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앞의 책, pp.15-28: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고조선, 부여, 진국편(1989), p.125.

인들이 즐겨 패용하던 장신구로 알려진 銀製打出動物文 帶鉤가 남성의 장신구로 부장된 반면, 남방계로 추정되는 사자형 수식이 여성의 장신구로 부장된 이원적 계보가 동시에 나타난 사회적 배경이 주목된다.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는 묘주의 사회적 성격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백동 37호분 이외에도 정백동 2호분과 정백동 92호분과 석암리 219호분에서 모두 4점의 은제타출동물문 대구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정백동 2호분에서 “夫租長印”이라는 銅印과 “高常賢印”이라는 銀印이 출토되어 묘주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貞柏洞 37호분 은제타출동물문 대구 獅子形 垂飾의 이원성 문제

정백동 37호분에서 출토된 대구는 전체적으로 옆으로 길게 누운 U字형으로 말의 발굽과 비슷한 형태인데, 은판의 뒷면에서 망치와 같은 도구로 쳐서 문양을 내는 타출기법으로 성큼성큼 걷는 호랑이가 표현되어 있다¹¹. 그리고 호랑이의 눈과 몸의 곳곳에는 琥珀과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등의 보석이 嵌裝되었다. 이 대구는 타출기법의 동물문과 감장기법으로 박힌 보석들로 보아 스키타이나 흉노 등 북방민족들의 북방식 대구 계열로 판단된다.

말발굽 형태의 대구는 트랜스-바이칼(Trans-Baical) 지대의 以東지역에서만 출토되는 분포상황으로 인하여 흉노인들의 장신구로 알려진다.¹¹ 이는 1996과 1997년에 걸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발굴한 짜람(Tsaraam) 계곡에 위치한 뒤레스뚜이(Dyrestuy)의 쿠르간 7호분의 발굴성과에 의한 것이다. 이 고분에서는 난폭하게 죽음을 당한 여러 구의 시신이 묘주를 중심으로 매장된 흉노전통의 장례풍습이 발견되어, 흉노 수장의 묘로 판단되고 있다.¹² 바로 이 고분에서 나무를 배경으로 곰과 뿔이 강조된 산양이 장식된 동물문 대구가 출토되었는데, 정백동 37호분의 동물문 대구와 같이 긴 말발굽 형태인 점이 주목된다^{도2}.

흉노수장의 묘인 뒤레스뚜이 쿠르간 7호분의 동물문 대구를 참고하면, 정백동 37호분의

¹¹ Minyaev, S., Sergey, "A Bronze Belt Plaque from the Dyrestuy Burial Ground," *Orientations* (July/August, 1998), pp.34-35.

¹² Minyaev, S., Sergey, "The Excavation of Xiongnu Sites in the Buryaita Republic," *Orientations* (November, 1995), pp.44-45; S. Minyaev · L. Sakharovskaya, "Sacrifice burials of the royal complex no. 7 at the Tsaraam cemetery" *Archaeological News*, vol. 9 (Saint-Petersburg, 2002), pp.86-118.

도 1 은제타출동물문 대구,
정백동 37호분, B.C. 1세기



도 2 동물문 대구, 디레스투이(Dyrestuy)
쿠르간 7호분, 흉노, B.C. 1세기



동물문 대구는 흉노 양식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백동 37호분의 묘주와 흉노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백동 37호분의 고분에서는 동물문 대구 이외에는 흉노와 연관된 매장풍습이나 다른 흉노계 부장품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묘주가 흉노인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¹³

낙랑고분에서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는 정백동 37호분 이외에도 정백동 2호분·정백동 92호분·석암리 219호분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이 4기의 고분 중 정백동 2호분에서 “夫租長印”이라는 관직과 관계된 白銅印과 “高常賢印”의 성명이 새겨진 銀製私印이 동반되었다. 이에 동물문 대구의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정백동 2호분의 ‘夫租長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¹³ 흉노의 무덤의 특징으로는 동물 殉牲, 屈肢葬, 동물문 대구와 금제품의 부장이 지적된다. 신용민, 「中國 漢代 匈奴·鮮卑 墓制 小考」, 『嶺南考古學』 24(嶺南考古學會, 1999), pp.103-134.

부조장은 嶺東七縣의 하나인 夫租縣長을 의미하며 황제의 발령을 받는 內郡의 관리로 알려진다. 그런데 현대에는 고향에 돌아가 매장되는 歸葬風習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을 참고하면,¹⁴ 고상현은 한의 조정에서 부임한 관리로 보기 어렵다.¹⁵ 따라서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漢人이거나 혹은 문서행정이 가능할 정도로 漢文化에 친숙한 古朝鮮人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한의 관리로 임명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夫租長印'의 의미는 묘주인 고상현이 낙랑 토착민으로 현장직을 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백동 2호분의 묘주가 土着人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른 증거로는 말기양식의 고조선식 細刑 銅劍이 동반된 사실을 들 수 있다. 고조선계 부장품의 존재는 낙랑 설치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착민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부조지역의 읍락을 아우르는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夫租歲君”인장이 나온 정백동 1호분이 참고가 된다^{도3}. 정백동 1호분에서는 고조선식의 전형적 차마구의 일종인 乙字形 銅器^{도4}가 출토되었다.¹⁷ 拳銃形 銅器으로도 명칭되는 을자형 동기는 고조선 특유의 차마구의 부속인데^{도2},¹⁸ 고조선계 유적으로 알려진 평양남도 대동군의 上里에서도 한국식 세형 동검과 더불어 실제 사용하여 구멍의 일부가 마모된 흔적이 있는 을자형 동기가 발견되었다^{도5}.¹⁹

고조선계 유물의 동반상황은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를 패용한 묘주들은 토착문화에 익숙



도3 “夫租歲君”인장.
정백동 1호분, B.C. 1세기

14 楊樹達, 『漢代婚喪禮俗考』(上海: 商務印書館, 1988), pp.196-210.

15 權五重, 「중국사에서의 낙랑군」, 『한국고대사연구』 34(한국고대사연구회, 2004. 6), pp.19-40.

16 吳永贊, 「樂浪郡의 土着勢力 再編과 支配構造」, 『韓國史論』 35(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6), p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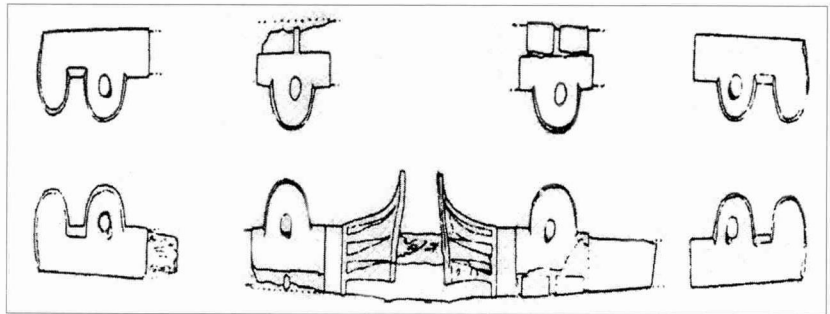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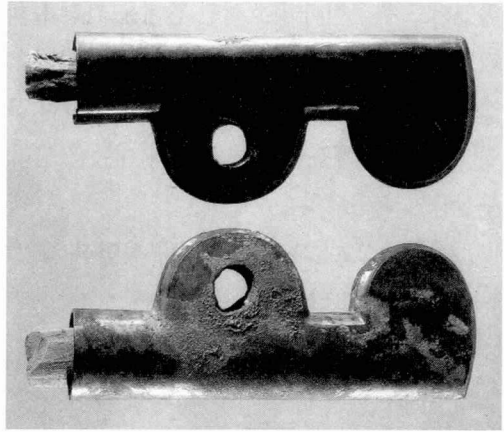
17 리순진, 「『부조예군』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4(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pp.181-191; 金基興, 「부조예군에 대한 고찰」, 『한국사론』 12(1985), pp.3-33.

18 하야시 미나오(林巳奈夫), 『漢代の文物』(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 p.436.

19 李清圭, 「세형동검의 형식분류 및 그 변천에 대하여」, 『한국역사학보』 13(1982), pp.1-37; 李康承, 「上里遺蹟」, 오다 후지오(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渉の考古學』(東京: 六興出版, 1991), p.142.

12 樂浪 貞柏洞 3號墳과 37號墳의 남방계 獅子形 垂飾과 商人의 활동

도 4 을자형 동기, 정백동 1호분,
 B.C. 1세기
 (『조선유적유물도감』
 고조선, 부여,
 진국편, pl. 242, p.114)



삽도 2 을자형 동기의 복원 모습



도 5 을자형 동기와 세형 동검 및
 각종 부장품, 대동군 상리

하면서도 한군현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사회적 기반을 말해준다. 이러한 묘주의 성격은 龜鈕形의 '王根信印'의 私印이 부장된 석암리 219호분에서 다시금 확인된다.²⁰ 호랑이와 용이 장식된 은제타출 대구도6가 출토된 석암리 219호분에서는, 창원 다호리 1호분의 것과 유사한 세형 동검 계통의 漆製 검집과 대동군 상리 유적 출토품과 같은 계통의 鐵戟 등의 토착계 부장품이 확인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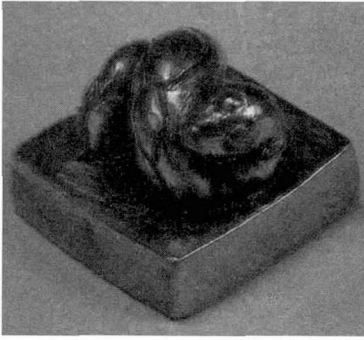
정백동 2호분의 고상현이나 석암리 219호분의 왕근이 한문화에 익숙한 낙랑 토착인이



도 6 은제타출동물문 대구, 길이 11.5cm, 석암리 219호분, B.C. 1세기



삽도 3 은제타출동물문 대구, 석채산 7호분(左上), 정백동 92호분(左下), 정백동 37호분(右上), 석암리 219호분(右中), 정백동 2호분(右下)



도 7 “滇王之印” 金印,
운남 진령 석채산 6호묘, 前漢

라면 이들이 어떤 연유로 북방 흉노양식의 동물문 대구를 패용하게 되었을지 흥미롭다. 이 문제와 연결되어 중국 예가 참고가 된다. 중국 雲南에 소재한 晉寧石寨山 7號墓에서는 낙랑의 예들과 같이 동물문이 장식된 긴 말굽형의 대구가 출토되었다²³. 漢代의 운남은 滇族과 북방계의 昆明族이 중심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彝族, 納西族, 苗族, 白族 등 100여 족이 넘는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었다.²² 이 지역은 철·동·주석 등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인도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교통 요지로서, B.C. 109년에 한무제에 의해 漢의 益州郡으로 편입되었다.²³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고분이 은제타출동물문 대구가 출토된 진령 석채산 7호묘라고 할 수 있다. 이 고분에서는 한대 제후들이 사용하는 龜形鈕를 가진 “滇王之印” 金印도 7이 출토되었다.²⁴

B.C. 109년과 B.C. 108년에 각각 한군현으로 편입된 역사적 공통점이 있는 낙랑과 운남에서 동일 양식의 북방식 동물형 대구가 출토된 점은 한과의 관계를 조명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戰國時代부터 북방 이민족의 수요에 따라 중국 공방에서 북방식 동물문 대구를 제작

²⁰ 이 인장은 『史書』에 명시된 인장의 규격에 맞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왕근의 개인적인 私印으로 간주된다. 나카무라 미요코(中村春壽), 『樂浪文化』(東京: 六興出版, 1990), pp.74-75.

²¹ 『樂浪漢墓』 第2冊(樂浪漢墓刊行會, 1975), p.25. 고분의 연대는 정백리 127호분의 永光元年銘(B.C. 43) 漆耳杯와 유사한 칠이배가 참고가 된다.

²² 『史記』「西南夷列傳」, “西南夷君長夷君以什數, 夜郎最大……其西靡莫之屬以什數, 滇最大, 自滇以北君長以什數, 滇最大, 此皆椎髮, 耕田, 有邑聚. 其外西自同師以東, 北至榆, 名焉, 昆明, 皆編髮, 隨畜遷徙, 毋長處, 毋君長, 地方可數千里.”

²³ 『史記』「西南夷列傳」, “元封二年(109年) 天子發巴蜀擊滅侵, 靡莫, 以兵臨滇, 滇王始首善, 以故弗隴. 滇王雖西南夷, 奉國降, 清置吏入朝. 于是以爲益州郡, 賜滇王王印.”

²⁴ 云南省博物館, 「云南晉寧石寨山古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75年 2期(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75. 2), pp.97-157.



삼도 4 (左) 七龍文金製帶鉤(平南 大同郡 石巖里 9號墳) (右) 九龍文金製帶鉤(新疆省 焉耆縣)

한 사례가 주목된다. 그 한 예는 西溝畔匈奴墓에서 출토된 장방형 金製牌飾인데, 이 패식에서 새겨진 少府라는 명문은 전국시대 趙나라의 왕실공방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 또한 阿魯柴登匈奴墓에서 출토된 금은제장신구의 뒷면에 무계를 나타내는 한자표기는 흉노주문자와 중국생산자와의 계약관계를 암시한다.²⁶ 흉노식의 대구에 중국산 錫이 사용된 점과 중국의 주조기술이 대구에 응용된 점과 관련하여 흉노양식의 금속공예품의 제작에서 중국공방의 역할이 지적되었다.²⁷

이로서 주문자로서 흉노와 제작자로서 중국 한의 관계로서 흉노식 동물문 대구가 중국 공방에서도 제작되었다. 한대에도 전국시대에 이어 왕실공방에서 북방식동물문 대구가 제작되었다. 한왕실에서 흉노를 무마하기 위해 준비한 등의 여러 물건 중에 동물문 대구로 판단되는 ‘黃金胥毘’가 『漢書』에서 확인된다.²⁸ 운남과 낙랑 등 새로이 한에 편입된 지역에서

²⁵ 小部는 황실의 재정을 담당한 기구이며, 궁중의 의복과 보화를 관리하였다. 田廣金·郭素新, 「西溝畔匈奴墓反映的諸問題」, 『文物』 1980年 7期, p.13; 가토 시게루(加藤繁), 「漢代に於ける國家財政との區別並に皇室財政一般」, 『支那經濟史考證』 上(東京: 東洋文庫, 1952), pp.36-37.

²⁶ 田廣金·郭素新, 「內蒙古阿魯柴登發現的匈奴遺物」, 『考古』 1980年 4期, pp.333-338.

²⁷ Jenny F. So and Emma C. Bunker, *Traders and Raiders on China's Northern Frontiers* (Seattle and London: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in association with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5), pp.66-69; Emma C. Bunker, "Ancient Ordos Bronzes with Tin-Enriched Surfaces," *Orientalions*, vol 21, no.1 (Jan. 1990), pp.78-80; 權寧弼, 「代替文獻으로서의 靑銅動物紋裝飾牌」, 『中央아시아研究』, 2호(중앙아시아학회, 1997), pp.45-46.

²⁸ 『漢書』 卷94上 匈奴列傳 卷64上, 「服繡袷綺衣, 長襦, 錦袷袍一, 比疏余一, 黃金飾具帶一, 黃金胥毘一, 繡十匹, 錦二十匹, 赤緹, 綠繪各四十四匹」.

U자형 동물문 대구가 출토된 점삼도3과 한의 왕실공방에서 이민족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동물문 대구를 제작한 상황을 연결하여 보면 낙랑의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는 한대 왕실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B.C. 1세기대의 은제타출동물문 대구에 이어 A.D. 1세기대로 가면 새로이 금립과 금석으로 표면을 장식하는 누금기법의 대구가 등장하는데, 낙랑 최고 위계의 고분으로 생각되는 석암리 9호분²⁹과 漢代에서 唐代의 焉耆國이 위치하였던 언기 고성에서 출토된 금제누금용문 대구가 그 예이다삼도4.³⁰

한편 운남과 낙랑의 은제타출문의 착용 계층을 비교해 볼 때, 雲南에서는 왕이 받은 반면 낙랑에서는 현장급의 중간 계층이 받은 차이가 주목된다. 이는 대규모의 병력을 이용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된 낙랑지역에서는 운남과는 달리 최상층의 지배 권력인 왕권이 와해되고 중간층 계층의 토착세력들은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그 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에도 세력기반을 잃지 않은 토착세력들이 문헌 정백동 3호분과 37호분에서 은제타출문 대구와 같이 정치적 관계로만은 규정할 수 없는 장신구가 동반되어 흥미롭다. 바로 중원이나 북방지역에서는 아직 그 예가 발견되지 않아 남방계로 추정되는 사자형 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자형 수식은 여성들의 장신구로 추정되는데, 인접지역이 아닌 중국 남방에서 원류가 살피지는 점으로 볼 때 교역관계에 의해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물자 집산지로서의 낙랑사회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사자형 수식의 계보를 중심으로 그 수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樂浪 貞柏洞 3호분과 37호분의 獅子刑 垂飾의 계보

1. 남중국의 獅子形 垂飾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낙랑의 정백동 3호분과 37호분에서 출토된 사자형 수식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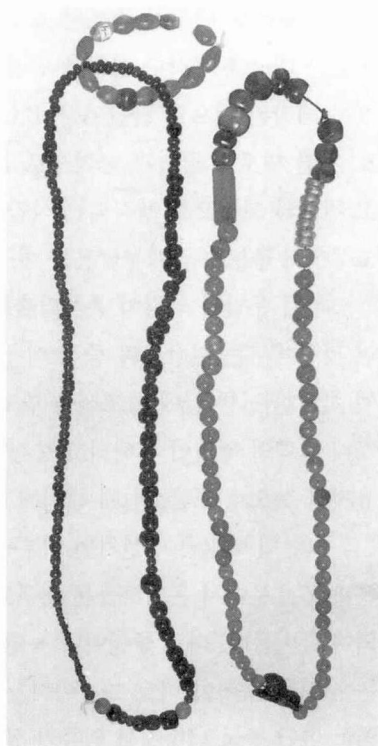
²⁹ 석암리 9호분에 대해서는 崔菊姬, 『樂浪古墳出土 金屬工藝品에 관한 研究—石巖里9號墳』(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참고.

³⁰ 韓翔, 「焉耆國都, 焉耆國都部治所與焉耆鎮城—博格達山古城調查」, 『文物』 1982年 4期(文化部文物局, 1982), pp.8-12; 이난영,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70-71.

여성의 목걸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三國志』의 魏書 東夷傳에서 韓에서는 “瓔珠를 財寶로 삼는데,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매달거나 귀걸이로 장식한다.”라고 쓰여 있다.³¹ 이는 三韓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성행하였던 구슬 목걸이를 즐겨 패용하는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정백동 3호분과 37호분의 목걸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새로이 사자형 수식이 첨가된 점과 새로운 재료가 한반도에 소개된 점이다. 먼저 정백동 3호분에서는 두 점의 목걸이가 출토되었는데, 남색 유리의 사자형 수식이 첨가된 목걸이에는 金箔구슬(Gold-foil Glass Bead, Gold-sandwich Glass Bead), 赤瑪瑙(Agate)구슬이 연결되어 있다³². 사자형 수식 이외에도 금박 구슬이나 적마노 구슬도 수입품으로 생각되는데, 금박 구슬의 경우 흑해 연안산으로 보기도 하고,³² 이란·인도·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³³ 마노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출되기는 하나 매끄럽게 연마된 표면으로 보아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마노의 산지로는 중국·인도·체코·독일·브라질 등이 유명하다.

목걸이의 중앙에 위치한 사자형 수식은 남색의 유리로 제작되었는데, 정면을 향하여 앉은 사자를 측면에서 본 모습이다³²⁻¹.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거푸집에 남색의 유리액을 넣고 굳은 다음 빼내는 鑄造技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8 목걸이, 정백동 37호분, B.C. 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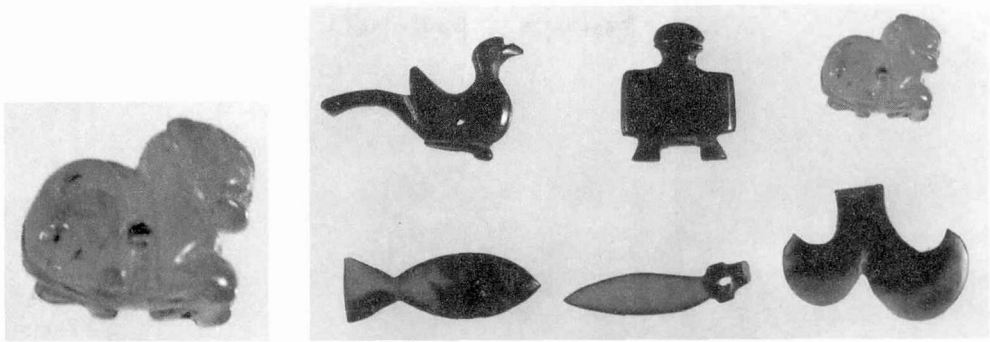


도 8-1 사자형 수식, 목걸이의 부분, 정백동 37호분

3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馬韓)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32 高橋進一, 「阿哲郡大佐町圓通寺1號古墳出土の金層ガラス玉について」, 『古代吉備』 14(1992), pp.245-246.

33 이인숙, 『한국의 古代유리』(創文, 1993), pp.81-82.



도9 사자형 수식,
정백동 3호분, B.C. 1세기

도9-1 각종 수식들, 정백동 3호분, B.C. 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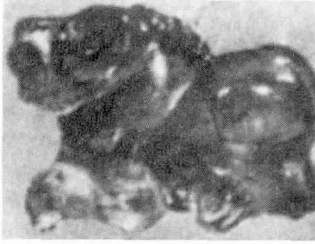
정백동 3호분의 사자형 수식도 37호분의 예와 같이 정면을 향해 앉아 있는 사자의 자세이다(도9). 이 사자형 수식은 마노 덩어리를 점차 파내면서 사자 형태로 조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자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양 눈과 두 구멍으로 간단하게 표현된 코 그리고 직선으로 입을 다문 얼굴이 표현되었다. 이 정백동 3호분의 목걸이는 사자형 수식 이외에도 다양한 상형수식이 첨가된 특징이 있다. 즉 유리질의 화산암인 黑曜石(烏石)으로 만든 새, 그리고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玳瑁로 만든 물고기, 병, 칼, 도끼 등이 사자형 수식과 함께 하나의 목걸이를 구성하고 있다(도9-1). 정백동 3호분과 정백동 37호분의 두 사자형 수식이 재료와 기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의 사자가 주제인 것은 정형화된 도상이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자형 수식의 도상의 원류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에 먼저 주목되는 지역은 중국인데, 사자형 수식은 양자강 이남지역에 속하는 廣東省과 江蘇省에서만 출토되는 지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광동성의 예를 보면 廣州漢墓라고 지칭되는 100여 기로 구성된 廣州郊區 4013號墓에서 琉璃製 사자형 수식 2점과 瑪瑙製 사자형 수식 1점이 확인된다(도10).³⁴ 이 사자형 수식들은 정백동 37호분의 예처럼 유리구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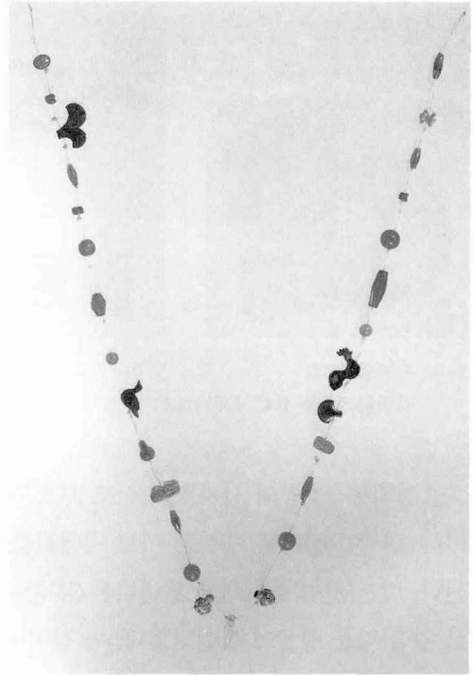
한편 1996년에 발굴된 江蘇省 揚州市 胡揚 14號墓에서 출토된 목걸이는 2점의 사자형 수식(도11-1)을 비롯하여 28점의 소품들이 연결된 구성이다(도11).³⁵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³⁴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北京: 文物出版社, 1981). 이 보고서에 실린 도판을 참고한 것인데, 그 정확한 수량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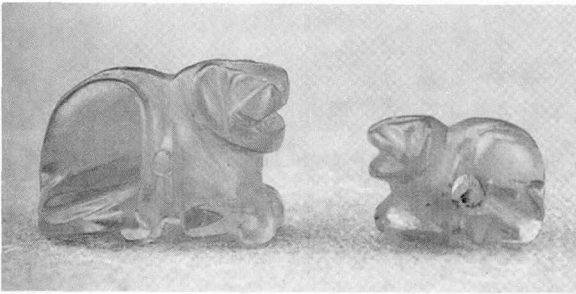
³⁵ 金關 恕·劉慶柱 監修, 『よみかえる漢王朝』(大阪: 便利堂, 1999), p.174.



도 10 사자형 수식, 廣州郊區 4013號墓, 漢



도 11 목걸이, 江蘇省 揚州市 胡揚14號墓, 漢



도 11-1 사자형 수식, 江蘇省 揚州市 胡揚 14號墓, 前漢

면, 금으로 만든 병과 실패, 마노제·대추옥·구슬·호리병 그리고 대모제 물고기·오리·닭·도끼·검 등이다. 이중에 동남아시아와 남해의 특산품인 玳瑁를 얇게 갈아 만든 물고기, 검, 도끼는 사자형 수식과 함께 정백동 3호분에서도 발견되었던 주제이다. 이 목걸이는 발굴 당시 묘주의 흉부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이 양주의 호양 14호분의 목걸이를 통해 사자형 수식이 실제 패용되었던 장신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 남방에서는 사자형 수식을 비롯한 여러 소품들이 연결된 목걸이를 어떤 목적으로 패용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3세기의 남중국에서 여인들의 장신구로서 金·玳瑁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명기 형태의 검·도끼·칼·방패 등 무기를 비녀에 장식하였다는 『宋書』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³⁶ 이 기록을 통해 검, 도끼 등의 무기 모양의 명기들이 액을 막아

³⁶ 『宋書』「五行志」, “晉惠帝元康(291-299)中, 婦人之飾有五兵佩, 又以金銀玳瑁之屬爲斧, 鉞, 戈, 戟以當笄.”

주는 護符의 용도로서 패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서 명기형 목걸이의 패용은 중국 남방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흔한 풍습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출토상황은 사자형 수식이 중국 전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아프가니스탄 티라 테페의 獅子形 垂飾과 동남아시아의 獅子形 垂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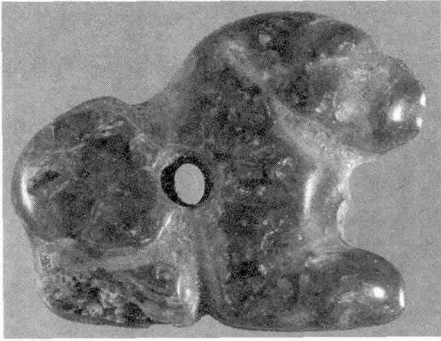
1978년에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시바르간(Shibarghan)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티라 테페(Tillya Tepe, Golden Hill)의 유적이 발견되었다.³⁷ 조로아스터교의 拜火壇으로 추정되는 사당의 바깥쪽에서 발굴된 6기의 고분에서 금제공예품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바로 이 중 4호분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사자형 수식의 祖形으로 생각되는 예가 발견되었다.

티라 테페의 사자형 수식은 이제까지 살펴본 낙랑과 중국 남방의 예와 같이 상체를 깊숙이 구부리고 정면으로 앉은 사자의 모습이다¹². 부드러운 琥珀을 이용하여 눈·코·입 등의 세부적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각된 사자의 중앙 부분에는 장신구로 패용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다. 티라 테페의 6기의 고분에서는 출토된 장신구의 대다수가 그레코 로만 계통이나 사르마티안계라는 점에서 이 사자형 수식은 다소 이색적이다. 그런데 사자형 수식 이외에도 티라 테페의 고분에서 사자를 주제로 한 공예품이 있어, 사자형 수식의 의미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6호분에서는 양면에 각각 사람과 사자가 표현된 금화가 출토되었다. 금화의 뒷면에는 앞발을 치켜들고 서 있는 사자가 양각되었는데, 구불거리는 갈기와 역센 근육의 표현은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4사자석주의 사자를 연상시킨다. 금화의 상단 우측에는 사자의 옆에는 인도에서 많이 쓰인 하로슈티 문자로 “두려움이 없는 사자”라고 쓰여진 명문이 있다¹³.³⁸ 뒷면에는 수염을 기른 나체의 남자가 바퀴를 굴리고 있는데, 그 옆에는 역시 하로슈티 문자로 “법륜을 굴리는 이”라는 명문이 있다¹³⁻¹. 수레바퀴는 불교의 진리의 상징으로 흔히 이해

³⁷ 히구치 타가야스(樋口隆康), 「テイラ・テペの遺寶」, 『佛教藝術』 137(1981. 8), pp.115-137; Victor Ivanovich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National Geography*, Vol. 177, No.3 (March, 1990), pp.350-375; 히구치 타가야스(樋口隆康), *The Golden Hoard of Bactria* (Leningrad: Aurora Publisher, 1985), pp.7-16; 이주형,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사회평론, 2004), pp.6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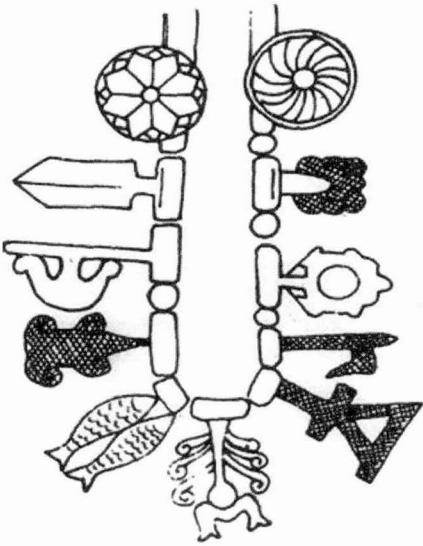
³⁸ 이주형, 앞의 책, pp.69-70.



도 12 사자형 수식, 티라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



도 13 금화, 티라 테페 6호분, 아프가니스탄, 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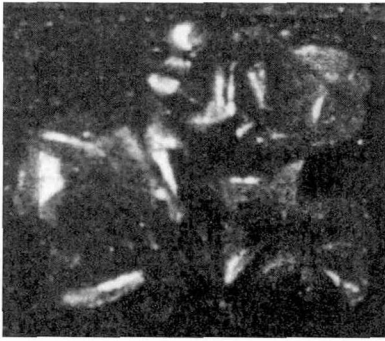


도 13-1 도 13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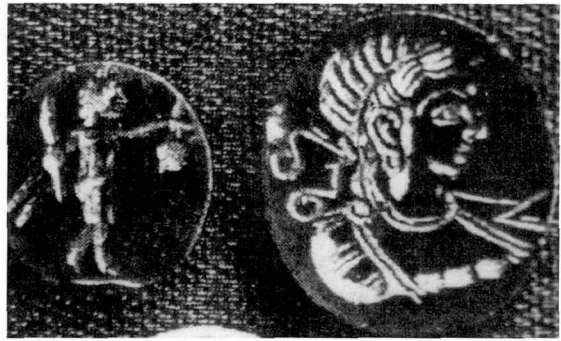
삽도 5 목걸이, 약사, 산치 대담 북분, 1세기, 인도

되고 있는데, 이 바퀴를 굴리는 인물을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된 부처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 금화의 연대는 대개 기원후 1세기로 파악되는데, 이때는 고대 박트리아 왕국이 위치 하였던 이 지역이 인도 쿠산 왕국의 영향권에 있을 때이다. 인도에서는 쿠산시대 이전부터 불교의 관계된 상징을 장신구로 패용하던 전통이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실물은 없지만 장신구를 패용한 人物像을 통하여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조각상들로 파악해 볼 때, 禮佛할 때 쓰이는 寶幢·寶瓶·法螺·果盤이나 佛壇을 장식하는 瓔珞·華鬘, 부처님의 위력을 상징하는 雙魚·獅子·卍字 그리고 護法 武器인 劍·戟·斧 등이 주제로 사용되었



도 14 사자형 수식, 타 차나(Ta Chana), 태국



도 15 음각인물문 홍옥수 장신구, 태국

다. 그 예로 기원후 1세기 초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치 대탑의 북문에 위치한 약사상의 목에 걸린 寶瓶, 雙魚, 華鬘, 劍, 戟 등이 연결된 목걸이를 들 수 있다³⁹. 부처님의 위력을 상징하는 여러 주제들이 장신구로 이용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한다.

인도양식의 사자형 수식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도 출토된다.⁴⁰ 현재 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남부의 수리타니(Suritani) 지방의 타 차나(Ta Chana)에서 수집된 사자형 수식은 틸라 테페의 예처럼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인데, 거꾸집에 유리액을 넣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도14}.⁴¹ 동남아시아의 사자형 수식의 출토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紅玉髓로 만든 로마 양식의 보석 장신구들이 동반되는 상황이다.

인물들을 양각하거나 음각한 보석을 감장한 보석장신구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부터 먼저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상 조각이 성행한 로마에서였다. 태국에서 출토된 음각인물문홍옥수 장신구에는 헤라클라스로 짐작되는 裸像의 인물과 휘날리는 리본을 맨 남자의 胸像이 각각 음각되어 있다^{도15}. 인물의 양식은 로마

³⁹ 벤자민 로울랜드, 이주형 역, 『인도미술사—굽타시기까지』(예경, 1996), p.86.

⁴⁰ M. Yokokura, "Objects in the Form of a Beast from Southeast Asia and Southeast China," *Journal of Southeast Asian Archaeology* 13(1993), pp.144-150.

⁴¹ Ian Glover, "The Southern Silk Roa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Early Trade Between India and Southeast Asia," *Ancient Trade and Cultural Contacts in Southeast Asia* (Bangkok: The Office of the National Culture Commission, 1996), p.73; Ian, C. Gover, "Ban Don Ta Phet: the 1984-85 excavation", *Southeast Asian Archaeology 1986*, Ian and Emily Glover (eds.) (Oxford: B.A.R, 1990), pp.139-184.

풍이나 홍옥수는 印度山인 점이 흥미롭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사자형 수식은 인도에서 활동한 로마인들과 관련된 것을 시사하는 셈이다.

한편 인도 동남부 해안의 풍디세리(Pondicherry)에 위치한 아리카메두(Aricamedu) 주거 유적에서도 로마 양식의 장신구가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장신구뿐 아니라 암포라형의 토기 등 로마 양식의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1930년대에 발견되어 1940년대 세 차례 발굴이 진행된 바 있는 아리카메두는 1992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과 인도의 마드라스 대학(University of Madras)이 연합하여 새로이 조사한 결과 최하층의 층위가 B.C. 2세기에 해당하는 것을 새로이 밝혀냈다. 이에 따라 로마인들이 남인도에 온 시기가 B.C. 2세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남인도의 풍디세리(Pondicherry) 근처의 아리카메두 유적은 로마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와 관계된 주거지로 해석된다.⁴² 결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남방의 사자형 수식의 분포는 당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점식 무역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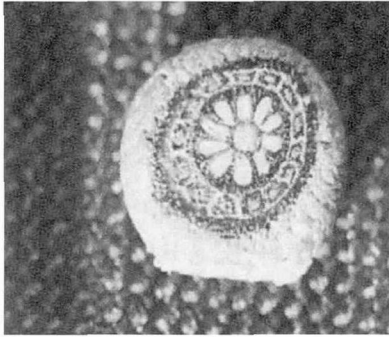
IV. 樂浪의 남방계 공예품의 수용과 거점식 교역체계

1. 동서 무역로인 바닷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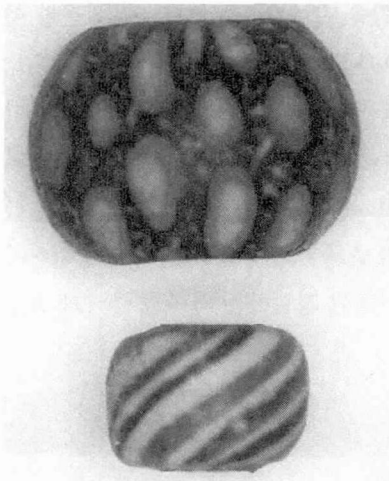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산재한 사자형 수식은 漢과 로마사이에 놓여진 바닷길의 존재를 제시한다. 바닷길은 풍랑이라는 위협요소도 있지만 이란이나 흉노 등 방해 세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량의 물산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점으로 인해 꾸준히 연결되었던 東西交涉의 교통로였다. 그러나 항해술이 그리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 한과 로마를 잇는 바닷길은 한 번에 연결되는 쉬운 길은 아니었다.

⁴² R. E. M. Wheeler, A. Ghosh, and Deva Krishna, "Arikamedu: An Indo-Roman Trading-station on the East Coast of India," *Ancient India* 2(1946), pp.17-124; Vimala Begley, "Arikamedu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Archeology* 87(1983), pp.461-482.

⁴³ Brain Colless, "Han and Shen-tu China's Ancient Relations with South Asia," *East and West*, vol.30 nos. 1-2(1980), pp.157-177; R. Camman, "Archaeological Evidence for Chinese Contacts with India during the Han Dynasty," *Sinologica* 5(1958), pp.1-19.



도 16 장식유리, 아리카메두, 인도 동남부



도 17 장식구슬, 자바, 인도네시아

그 동안 학계에서는 한대 바닷길의 존재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에서 간헐적으로 출토되는 한대의 칠기와 동경 등의 공예품들은 인도와 중국 간의 교역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⁴³ 바닷길을 증명하는 직접적 자료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리와 마노 등의 보석제품들이 바닷길의 무역로를 따라 출토되고 있어,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남방을 잇는 바닷길의 거점식 무역체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밀레피오리(Millefiori)나 모자이크(Mosaic) 유리 등 장식유리들은 로마 유리의 영향을 받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생산된 유리인데, 당시 바닷길의 중계무역 거점지에서 중점적으로 출토되고 있다.⁴⁴

바닷길의 장식유리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인도 남동부 해안의 아리카메두의 유리구슬 제품이다.⁴⁵ 아리카메두에서는 여러 색의 유리 막대로 화문을 구현한 장식구슬들이 출토되었다도16. 한편 스리랑카의 만타이(Mantai), 타이의 크롱 톰(Khlong Thom),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스리비자야(Srivijaya), 말레이시아의 송가이 마스(Sungai Mas), 베트남의 오크 예오(Oc -eo) 등에서도 인도의 아리카메두의 것과 같은 기법으로 만든 유리구슬

들이 출토되었다도17. 이들 지역에서는 유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인도네시아 스리비자야에서는 인도어의 구슬을 의미하는 마닉(Manik)과 장인 연합의 그라만(gramman)이 합쳐진 “마닉그라만(Manikgramman)”, 즉 유리장인연합이라는 명문이 발

⁴⁴ 拙稿, 「皇南大塚 北墳 裝飾구슬의 系譜와 바닷길 무역」, 『科技考古研究』 第9號(아주대학교박물관, 2003), pp.51-72.

⁴⁵ 주 42 참고.

견된 점은 현지 생산과 관계된 중요한 자료이다.⁴⁶

또한 베트남 남부의 오크 에오 유적에서는 장식 유리구슬과 함께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새겨진 주화와 로마 양식의 보석장신구가 발견된 점은 이들 지역이 로마의 거점식 무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바닷길은 로마가 중국 통상의 길로 꾸준히 이용하였는데, 로마의 사신이 동남아시아에서 운남을 거쳐 사천을 통하여 한의 朝政에 入朝한 경로는 이미 商圈에 의해 구축된 길인 것이다.⁴⁷ 로마인들은 B.C. 1세기에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이 개발되면서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동방에 진출할 수 있었다.

바닷길은 로마쪽에서만 중요한 길이 아니었다. 중국도 서쪽으로 진출하는 길로 바닷길을 여러모로 고려하였다. 한무제의 명을 받은 장건이 雲南路를 통해 四川의 비단이 大夏, 즉 박트리아에 전해진 사실을 알고, 한무제에게 운남과 사천을 지나 인도로 가는 길을 권한 사실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⁴⁸ 한무제가 B.C. 2세기 초에 雲南과 安南 등을 정복하고 益州郡·日南郡 등의 9개 군을 설치하여 동남아시아 水系網을 얻은 이후에는 바닷길의 이용이 보다 쉬웠을 것이다. 운남에서 미얀마의 이라와디(Irrawaddy) 강을 거치는 西南실크로드나 廣東에서 베트남의 하노이와 수마트라의 팔렘방(Palembangese) 군도를 경유한 다음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길이 인도로 가는 길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광둥은 서방과 동남아시아에서 도달한 외래물산과 서방으로 나가기 위해 중국물산들이 집결하는 바닷길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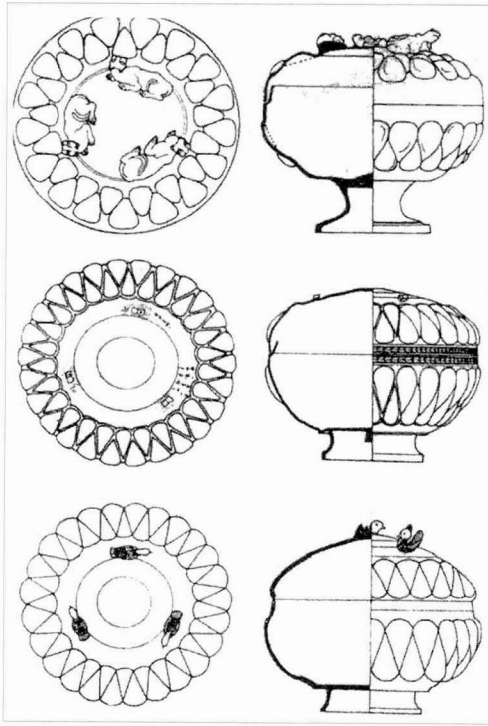
2. 중국 내륙의 거점지: 山東

이제 광둥에 집결된 외래계 물자가 낙랑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⁴⁶ Francis Peter, *Asia's Maritime Bead Trade 300 B.C. to the Pres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p.38-39.

⁴⁷ 弗雷德里克·J·梯加特, 丘進 譯, 『羅馬與中國』(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93), pp.3-5. Frederick J. Teggart, *Rome and China—A study of Correlations in Historical Ev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39; 饒宗頤, 『蜀布與 cinapatta』, 『梵學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p.222-260.

⁴⁸ 『史記』「西南夷列傳」, “元狩元年(B.C. 122), 博望侯 張騫使大夏來, 言居大夏時見蜀布邛竹杖, 使問所從來, 曰從東南身毒國, 可數千里, 得蜀賈人市. 或聞邛西可二千里有身毒國. 騫因盛言大夏在漢西南, 慕中國, 患匈奴隔其道, 誠通蜀, 身毒國道便近, 有利無害. 於是天子乃令王然于柏始昌呂越人等, 使開出西夷西, 指求身毒國. 至滇, 滇王嘗羌乃留, 爲求道西十餘輩. 歲餘, 皆閉昆明, 莫能通身毒國.”



삽도 6 은합 (上) 西漢齊王墓(B.C. 179), 山東
(中) 西漢南越王墓
(B.C. 128-B.C. 117), 廣州
(下) 石寨山漢墓, 雲南, 漢



도 18 銀器, 남사리 29호분,
낙랑, 2-3세기, 漢 혹은 魏晉

이에 대한 자료로서 광둥과 산둥, 그리고 낙랑에까지 연결되는 페르시아 양식의 銀器가 주목된다. 雲南 石寨山墓, 廣州 南越王墓(B.C. 128-B.C. 117), 山東의 西漢 齊王墓(B.C. 179)에서는 페르시아 양식의 盃이 발견되었다⁴⁹.

망치나 끌과 같은 도구로서 은판이나 금판을 때려가며 형태를 잡는 鍛造기법으로 만든 金銀器는 페르시아 상류층의 보편적인 식기와 의례용 그릇이었다. 雲南 石寨山墓, 廣州 南越王墓, 山東의 西漢 齊王墓에서 출토된 盃은 뒤에서 처서 문양을 내는 打出技法으로 여러 층의 입체적인 花葉文이 공통적으로 장식되었다. 이 세 고분에서 출토된 盃은 청동으로 된 운남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이 재료이며, 기형과 문양 면에서 파르티아(Partia)의 은기와 비교된다.⁵⁰

특히 산둥 제왕묘의 은기는 청동으로 세 마리의 동물을 따로 만들어서 뚜껑에 부착하고 높은 청동 굽을 달아 제사용 그릇인 豆와 비슷하게 꾸민 점에서 페르시아 은기의 중국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즉 페르시아 양식의 은기를 중국식으로 변용한 셈인데, 낙랑의 남사리 29호분의 은기는 중국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게 가미되었다.

⁴⁹ 산둥에서 발견된 것은 광주의 월상인의 북방의 齊와의 해상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岡田英弘, 「倭人とシルクロード」,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7號(大和書房, 1978), p.7.

⁵⁰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北京: 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pp.248-249.



도 19 방격규구사신경, 지름 19.5cm, 두께 0.6cm,
정백리 127호분, B.C. 1세기

그릇 저면에 타출된 연화문은 페르시아 은기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포수가 달린 귀면 장식과 點彫技法과 線彫技法로 장식된 서수들은 중국적 요소이다¹⁸.

페르시아 양식의 은기가 운남, 광둥, 산둥 그리고 낙랑을 연결하여 출토되는 지리적 상황은 낙랑으로 유입되는 외래계 물산의 중간 거점지로 산동을 주목하게 한다. 전한시대의 산동은 인구가 70만인 중심지로 당시 수도인 서안보다 인구가 더 많은 곳이었다. 정치의 중심은 서안의 關中지역이었지만 인구나 경제력은 산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산동지역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황제들은 산

동지역에 巡幸을 자주 하였다.⁵¹ 순행시 封禪儀禮가 거행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필요한 器物과 물자는 산동의 工官에서 공급이 되었다.⁵² 이에 따라 산동 지역은 서안 못지 않게 상업과 공예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낙랑 고분의 출토품 중 산동의 공관에서 제작된 것으로는 정백리 127호분(王光墓)의 方格規矩四神鏡이 있다.⁵³ 이 고분에서는 서안 제작의 異體字銘帶鏡과 산동 제작의 방격규구사신경 두 점의 거울이 동시에 출토되었는데, 방격규구사신경 내면의 양각된 명문에 “泰山作”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산동에서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⁵⁴ 바로 이 방격규구사신경이 산동에서 낙랑으로 건너가는 물자의 유통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점에

51 許富文, 『漢代 中央과 地域의 相互關係 研究—특히 關中 및 山東과 西北地域을 중심으로』(西江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8), pp.10-39.

52 『漢書』卷 28 上 地理志 泰山郡條.

53 왕광묘의 동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 참고. 權五重, 「樂浪 王光墓의 銅鏡」, 『釜大史學』第23輯(釜山大學校 史學會, 1999, 6), pp.89-107; 同著, 「方格規矩四神鏡의 流轉」,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2000), pp.149-177.

54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泰山作竟眞大巧 上有仙人不知老渴飲玉泉飢食棗 壽長如此兮(태산에서 경을 만드니 참으로 크게 교묘하다. 태산 위에 선인이 있어 늙는 줄 모른다. 목마르면 옥천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고 장수함이 이와 같다).”



도 20 칠렵에 담긴 동경, 석암리 205호분, B.C. 1세기



도 20-1 빗·빗술, 길이 12cm,
정백리 151호분·정백리 127호분

서 중요하다.

서안에서 유입된 이체자명 대경과는 달리 방격규구사신경은 方形 漆奩에 담겨서 출토되었다.⁵⁵ 낙랑에서는 동경은 칠렵에 담겨서 출토되는 예가 많다. 여러 단으로 구성된 칠렵에 빗, 빗술, 화장용 붓 등이 담긴 채 출토된 석암리 205호분(王盱墓)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20, 20-1. 그런데 칠렵을 포함한 칠기들의 제작지와 동경의 제작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대의 칠기의 제작지는 南海郡의 番禺(지금의 廣州), 郁林郡의 蒲山(광서성의 桂平), 城陽國의 莒縣(산둥성 거현), 그리고 蜀郡의 成道 등으로 알려진다.⁵⁶ 낙랑고분에서는 銘文 漆器들이 다수 출토되어 제작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명문으로는 제작공관을 刻銘한 중앙공관인 “考工” “右工”, 지방공관인 “蜀郡西工” “廣漢郡工” “成都郡工”, 소유자와 관계된 황제의 御用의 기물에 표시하는 “乘輿”, 제후국의 음식 관련 기구인 “大官” “湯官”, 그리고 왕망대 황태후궁에 속한 태관인 “常樂大官”의 刻銘이 있다.⁵⁷ 이 중 ‘蜀郡西工’, ‘廣漢郡工’, ‘成都郡工’ 이 위치한 곳은 양자강의 상류에 위치한 四川省에 설치된 곳으로, 이 명문이 쓰여진 칠기는 사천성에서 제작된 것이다.

55 權五重, 앞의 글, p.95.

56 王仲殊, 姜仁求 譯註, 『漢代 考古學 概說』(學研文化社, 1993), pp.95-96.

57 李康美,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대한 일고찰」, 『韓國上古史學報』 11(韓國上古史學會, 1992), pp.7-95.

한편 공관 명 이외에도 제작지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다. 정백동 2호분, 정백동 3호분, 석암리 205호분 등의 칠기에는 피장자와 관계된 길상어가 쓰여져 있는데, ‘周古’ 인장이 출토된 정백동 3호분의 경우에는 “周” 漆耳盃, “周氏” 漆盤, “大周” 漆奩가 출토되었다. 또한 산동산의 방격규구사신경이 출토된 석암리 205호분에는 “王氏牢” “王大利” “利王” “益先” “番氏牢”의 길상명문이 붓으로 적혀 있다. 정백동 3호분의 칠기 등 붉은 글씨로 그릇 내면에 쓴 명문의 형식이 강소성의 胡揚五號墓의 칠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은 이 칠기들이 남중국산일 가능성을 제시한다.⁵⁸

명문칠기를 통해 제작지를 검토한 결과 낙랑과 가까운 산동에서 제작된 예는 하나도 없고 남중국의 칠기가 대부분인 점이 주목된다. 그 동안 낙랑의 명문칠기에 대해서는 황실에 납품하고 남은 칠기를 상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한대의 무휼정책에 따라 선물로 준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⁵⁹ 남중국에서 제작한 칠림에 산동산 동경과 여러 화장도구들이 함께 구성되어 낙랑에 도달된 것은 일괄 사여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경의 크기에 맞추어 칠림에 제작되어야 하는 제작 구조를 고려하면, 방격규구경의 산지인 산동에서 칠림이 세트화되어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의 취향을 맞춘 상인이 주체가 일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산동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國營商業政策을 펴나가면서 민익을 보호하였던 齊가 위치한 산동은 상인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던 지역이었다. 남방의 越상인이 북상하여 산동에 오기도 하고, 제상인들이 전국에서 특산물을 산동으로 모아오기도 하였다.⁶⁰ 고조선의 상인들도 당시 상업의 중심지인 산동에 가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⁶¹ 『管子』에 古朝鮮의 특산품인 무늬 있는 동물 가죽인 文皮도 齊에서 유통되던 중요한 교역품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다.⁶²

⁵⁸ 최국희, 앞의 논문, pp.81-82; 楊洲博物館·邳江縣圖書館, 「江蘇邳江胡揚五號漢墓」, 『文物』 1981年 11期, p.12.

⁵⁹ 李康美, 앞의 논문, p.50.

⁶⁰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倭人とシルクロード」,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7號(大和書房, 1978), p.7.

⁶¹ 朴倬住, 『齊國 經濟와 『管子』의 經濟 政策論』(서울대학교 大學院 東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4), pp.20-29.

⁶² 『管子』 卷23 「揆度」篇,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發, 朝鮮不朝, 請文皮, 服而以爲幣乎, 禺氏不朝, 請以白璧爲幣乎 崑崙之虛不朝, 請以瑇瑁琅玕爲幣乎. 故夫握而不見于手, 含而不見于口, 而闕千金者, 珠也, 然后八千里之吳, 越可得而朝也,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后八千里之發, 朝鮮可得而朝也.”

3. 낙랑의 무역

『漢書』에는 다음과 같이 낙랑을 빈번하게 출입하던 중국 상인들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남아 있다.⁶³

그 田民들은 籩豆로 먹고 마시는데 도읍에서는 자못 교리 및 내군의 賣人을 흉내내어 이따금 배로 먹기도 한다. 軍은 초기에 遼東에서 屬吏를 취하였는데 주민들이 閉藏함이 없음을 보았다. 賣人으로 왕래하는 자들이 밤에 도적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각박하여졌다.

이 기록은 낙랑 주민들의 풍습을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수의 상인들이 낙랑을 방문한 것을 나타낸다.

한대에는 기본적으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물품의 보관과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화폐징수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고, 화폐의 개인주도도 허락되었다.⁶⁴ 화폐경제의 발전과 함께 신분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경제력은 비대해졌다. 상인들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부상들은 중국 전역을 떠돌면서 특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토산물들을 사고 팔았다. 『史記』 「貨殖列傳」에는 부상대가들의 활약상이 잘 나타나 있다.⁶⁵

낙랑에서는 교역의 매개물로 쓰인 무수한 중국 화폐들이 출토되었다.⁶⁶ 바로 정백동 3호 분에서도 明刀錢과 五銖錢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한에서 발행된 오수전과 함께 燕에서 유입된 명도전이 함께 부상된 것은 묘주가 낙랑설치 이전의 토착세력이었던 사실에 기인한다.⁶⁷ 낙랑의 중국화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랑에 찾아온 많은 상인들의 활동과 관

63 『漢書』卷28 地理志 下, “其田民飲食以籩豆, 都邑顔放效吏及內郡賣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于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賣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64 김용은, 『漢 前期 國家財政과 財政論 研究: 桑弘羊(B.C. 152-B.C. 80)의 財政政策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13-40.

65 『史記』 「貨殖列傳」, “漢興海內爲, 開關梁 弛山澤之禁 是以富商大賈 周遊天下 交易之物莫不通 得其所欲(한이 흥하여 해내를 통일하자 관랑을 열어 산택의 禁을 완화시키어 부상대가는 천하를 주유하여 교역의 물품을 유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손에 넣을 수 있었다).”

66 金鍾太, 「樂浪時代の 貨幣銘文考」, 『全北史學』 1(전북대학교 사학회, 1977), pp.202-203; 오카우치 미치자네(岡内三眞), 「漢代五銖錢の研究」, 『朝鮮學報』 102輯(天理大學朝鮮學會, 1982), pp.107-109.

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낙랑에서 외부로 팔리는 물건은 주로 철이나 소금과 같은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지만, 변한이나 왜 등지에 사들인 생사를 낙랑에서 가공한 비단도 있다.⁶⁸ 낙랑의 비단은 중국상인들이 선호하는 토산물로 중국에까지 명성이 있었다. 낙랑이 외부에서 산 물건들로는 사자형 수식과 같은 장신구류, 비단, 칠기, 목재 등이 있다.

낙랑과 한의 물산이 오간 통로로는 遼東을 거쳐 도달하는 육로와 산동반도로 통하는 해로가 있다. 이 두 교역로는 최종 목적지에 따라 결정되었겠지만, 낙랑의 주된 수출품인 철과 소금과 같이 무거운 물산은 많은 양이 적재되는 해로로 옮기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산동은 중국 동남연안의 중심지로 북에서도 물산이 내려오지만 동남 해안을 타고 남중국의 물산도 집결되었다. 사자형 수식, 칠기등의 남방물산이 산동을 거쳐 낙랑에 도달한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낙랑은 중국과의 교역과 더불어 삼한과 일본과의 쌍방향의 교역을 진행하였다.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은 낙랑과의 교역을 통해 정치권력을 성숙시켰고,⁶⁹ 일본은 변한을 매개로 하여 낙랑과 교섭하면서 성장하였다.⁷⁰ 이로 볼 때 낙랑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물산의 집결지였고, 이들 물산들을 사고 팔기위해 많은 상인들이 활동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정백동 3호분과 37호분의 사자형 수식을 중심으로 낙랑이 남방물산을 수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낙랑사회와 미술문화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로서 사자형 수식을 주목한 것은 행정수급에 의해 수용된 장신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자형 수식은 모두 여성의 장신구로 부장되었는데, 정백동 37호분에서는 남성 묘주의

67 金鍾太, 앞의 논문, pp.207-208.

68 尹龍九, 「삼한과 낙랑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 34(한국고대사학회, 2004. 6), pp.127-128.

69 李賢惠,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韓國古代의 생산과 교역』(一潮閣, 1998), pp.264-290.

70 디케스에 주니치(武末純一), 「日本九州 및 近畿地域の 韓國系 遺物」,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 三國의 交渉』(부산광역시 북천박물관, 2002), pp.126-127.

신분을 알 수 있는 북방식의 은제타출동물문 대구가 동반되었다. 정백동 37호분을 비롯하여 정백동 2호분, 정백동 92호분, 석암리 219호분에서도 은제타출동물문 대구가 출토되었다. 정백동 2호분의 묘주는 夫租縣長을 지낸 사람인데, 前漢의 엄격하게 지켜졌던 歸葬制와 고조선계의 세형 동점이나 을자형 차마구를 참고하면 토착인으로서 한의 관리에 임명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운남 진령 석채산 7호분의 동물문 대구를 검토한 결과 동물문 대구는 한의 왕실공방에서 제작하여 새로이 편입된 이민족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자형 수식은 북방이나 중원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동물문 대구와 같은 통로로 유입된 것이 아닌 점을 주목하였다. 인도에 그 祖形이 있는 사자형 수식은 현재 광동성과 강소성의 중국 남방에서만 발견되는 장신구로 검이나 도끼 등과 명기형 수식과 함께 구성되기도 하며, 액을 막아주는 護符로서 채용되었다. 사자형 수식이 남방의 한정된 지역성을 보이는 양상은 당시 중국과 서방 간에 이루어진 바닷길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남방지역의 사자형 수식의 분포를 살펴보면 당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점식 무역과 연관이 있었다.

다음 중국 남방에서 낙랑까지의 수용 과정에서 중간 거점지로 산동을 주목하였다. 이는 사자형 수식과 함께 서방계 외래요소를 보이는 페르시아 양식의 銀器가 廣東과 山東 그리고 낙랑을 이어서 출토된 사실에 착안한 것이었다. 중간 거점지로서 산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상인들의 활동양상이 조명된 점이다. 정백리 127호분에서 출토된 산동산 방격규구사신경이 담긴 남중국산의 漆奩은 산동의 상인이 낙랑의 취향에 맞추어 화장도구를 세트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산동은 춘추전국시대부터 고조선 상인들도 활동한 지역이었다. 한대 武梁祠의 화상석에 단군신화와 관계된 장면이 표현된 것도 이미 산동에 고조선문화가 알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낙랑에는 중국 상인뿐만 아니라 삼한 및 일본의 상인들도 낙랑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국내외적으로 물산의 집산지가 되었다. 낙랑에서 활동한 상인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이해되었던 것처럼 낙랑문화가 漢郡縣으로서 일방적으로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낙랑이 설치되기 전부터 토착지역의 전통과 취향 속에 국제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의미한다.

* 주제어(key words) — 樂浪(Nangnang, Lolang), 古朝鮮(Old Joseon), 정백동 고분(Jongbaekdong Tomb), 사자형 수식(Lion Pendant), 은제타출동물문 대구(Silver Repousse Animal Buckle), 廣東(Guangdong, Canton), 山東(Shandong), 동서교섭(East-West Relationship)

■ 투고일 2005년 1월 20일 | 심사일 2005년 2월 1일 | 심사완료일 2005년 2월 15일 ■

국문초록

漢武帝는 치열한 전투 끝에 衛滿朝鮮을 멸하고, B.C. 107년에 樂浪·玄菟·臨屯·眞番의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樂浪은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漢과 魏晉 등 여러 왕조를 거치며 420여 년간 존속하였다. 낙랑은 한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중국 사회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생성되었지만 고조선의 연결선상에서만 조명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오랜 기간 한반도에 위치하였던 낙랑이라는 독특한 지역사회의 성격을 사회상이 반영된 장신구를 통하여 조명하였다.

특히 낙랑의 장신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접한 곳이 아닌 먼 거리에 떨어진 지역에서 유래한 외래계 장신구들의 존재이다. 외래계 장신구의 수용과정의 분석은 낙랑의 특수한 성격과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외래계 장신구 중에서도 특히 낙랑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그 근원이 있는 獅子形 垂飾의 계보와 수용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자형 수식은 남녀 합장묘인 貞柏洞 3호분과 貞柏洞 37호분에서 모두 여성의 장신구로 출토되었다. 한편 남성 묘주의 신분과 관계된 북방식 은제타출동물문 대구가 사자형 수식과 함께 동반된 점은 이들 장신구를 패용한 낙랑인들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는 정백동 37호분을 비롯하여 정백동 2호분, 정백동 92호분, 석암리 219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 정백동 2호분의 묘주는 夫租縣長을 지낸 사람인데, 前漢의 엄격하게 지켜졌던 歸葬制와 고조선계의 細形 銅劍이나 乙字形車馬具를 참고하면 토착인으로서 한의 관리에 임명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雲南 晉寧 石寨山 7號墓의 동물문 대구와 비교 검토한 결과 동물문 대구는 한의 왕실공방에서 제작하여 새로이 편입된 이민족에게 준 선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사자형 수식의 패용자는 고조선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한과 좋은 관계를 가진 토착민의 부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은제타출동물문 대구는 한과의 행정수급에서 수용된 장신구인 반면, 사자형 수식은 행정수급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은 낙랑사회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사자형 수식은 북방이나 중원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지역적 특징이 있는 장신구이다. 본래 인도에 그 祖形이 있는 사자형 수식은 현재 廣東省과 江蘇省의 중국 남방에서만 발견되는 장신구로 검이나 도끼 등과 명기형 수식과 함께 구성되기도 하며, 액을 막아주는 護符로서 패용되었다. 사자형 수식이 남방의 한정된 지역성을 보이는 양상은 당시 중국과 서방 간에 이루어진 바닷길 무역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남방지역의 사자형 수식의 분포를 고찰한 결과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점식 무역의 영향인 것이 究明되었다.

다음으로 중국 남방에서 낙랑까지의 경유지로 山東이 주목되었다. 이는 사자형 수식과 함께 서방계 외래요소를 보이는 페르시아 양식의 銀器가 廣東과 山東의 동남연안을 거쳐 낙랑을 잇는 통로로 출토된 고고학적 분포와 관련이 있다. 중간 거점지로서 산동의 역할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상인들의 활동이 조명된 점이다. 정백리 127호분에서 출토된 산동산 방격규구사신경이 담긴 남중국산의 漆奩은 산동의 상인이 낙랑의 취향에 맞추어 화장도구를 세트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산동은 춘추전국시대부터 고조선 상인들도 활동한 지역이었다. 산동에 위치한 한대 武梁祠의 화상석에 단군신화와 관계된 장면이 표현된 것도 이미 산동에 고조선문화가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상인뿐 아니라 삼한 및 일본의 상인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한 낙랑은 국내외적으로 물산의 집산지가 되었다. 낙랑에서 활동한 상인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이해되었던 것처럼 낙랑문화가 漢郡縣으로서 일방적으로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낙랑이 설치되기 전부터 토착 지역의 전통과 취향 속에 다양한 국제문화를 섭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의미한다.

ABSTRACT

Lion Pendants of the Southern-Chinese Style from the Jeongbaek-dong Tomb and the Merchants' Activities

Lee Songran

In 108 B.C. the Han dynasty invaded Wiman Joseon and established a commandery at Nangnang near Pyeongyang with a view to checking its power and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iman Choson-Xiongnu alliance, Nangnang survived until the beginning of the fourth century A.D. when it was conquered by Goguryeo and Baekje.

Despite increasing Chinese controls, Nangnang kept its unique cul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naments of Nangnang in order to clarify differences between Nangnang culture and Chinese culture and draw an accurate picture of its early society. The ancient ornaments reflect th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produced. In particular, the lion pendants, which originated in a far-off place, would be intensively studied. These pendant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clue for clarifying the unique character of Nangnang.

Lion pendants were unearthed at the wife's coffin in Jeongbaek-dong no. 3 tomb and Jeongbaek-dong no. 37 tomb, which were joint graves of husband and wife. A silver repousse animal buckle was excavated at the husband's coffin in Jeongbaek-dong no. 37 tomb. The stylistic analysis and the consideration of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Xiongnu and Han suggest that the silver repousse animal buckle was made in a royal workshop of Han. The buckles were given as gifts to the rulers of Nangnang and

Yunnan who were newly subjugated by Han. These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estimating the social status of the deceased. It is quite possible that Jeongbaek-dong no. 3 tomb and Jeongbaek-dong no. 37 tomb belonged to natives who were familiar with the Old Joseon culture and friendly with the Han dynasty.

While the silver repousse animal buckles were given by administrative supply, the lion pendent was transmitted through another channel. The lion pendants were excavated only in the area of southern China. According to historical sources, lion pendants were worn as a charm against evils in southern China, while they have not been discovered in inland and northern China. This geopolitical consideration reveals the ancient maritime trade and cultural contacts between southern China and India. The Romans were the major player of this trade, and many vessels sailed from southern China to Vietnam and the Malay archipelago in the direction of India and the Roman Orient. Due to Sino-India maritime trade, lion pendants of Indian origin were imported to southern China including Guangdong,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on the sea.

The Shandong province was considered as a connecting point between southern China and Nangnang. A lacquer toilet set consisting of a comb and a copper mirror from Jeongbaek-dong no. 127 tomb indicates that the luxury items were introduced to Nangnang by way of Shandong. An inscription reveals that the copper mirror was made at a workshop in Shandong. But the lacquer box containing the copper mirror was produced in southern China. The Han dynasty tightened control over the lacquer industry and introduced early processes of mass production used in a western factory workshop in Shu (present Sichuan province). When the government was satisfactorily supplied, surplus lacquers were sold to merchants. The setting process of the lacquer toilet set from Jeongbaek-dong no. 127 tomb suggests that it was the article of a merchant from Shandong.

According to Chinese literary sources and archaeological finds, a number of Chinese merchants including those from Shandong visited Nangnang, while Nangnang merchants visited Shandong. The lions pendants of Nangnang were articles transmitted through this trade route in this way.